

장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케이지 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이에 대항해 정치활동을 강화해 전면 대응키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모 정치가는 Defra(환경사료농업사무국)의 관계자가 생산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EU 동물애호지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동물애호정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 양계인은 새롭게 가입한 EU가맹국들의 준비부족과 EU국들간의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지 금지조치는 양계업계에 너무나 가혹한 행위라고 맹 비난하기도 하는 등 케이지 금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鷄鳴新聞)

오스트리아

케이지 사육 금지 EU보다 앞당겨

오스트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 보다 이른 2009년 산란계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키로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동물 애호가들의 과격한 시위로 이루어진 조치이며, 2009년 이후 복지 케이지는 허용키로 하였다. 이에대해 생산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9개지역중 이미 최근까지 5개지역에서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자연란, 방사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케이지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3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내에 20%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계란에 대한 수입증가가 불가피해졌으며, 케이지 업자들은 카자흐스탄 등 이웃

나라로 사업을 전향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키로 협의해 놓은 상태이다. (PT)

파키스탄

양계업 제2의 산업으로 급부상

파키스탄에서는 양계산업이 750루피(약 1조5천 억원) 규모의 투자총액을 기록하면서 제2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1년동안 82억개의 계란과 402천톤(3억5천만수)의 닭고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닭고기는 백색육 선호 기류가 이어지면서 소비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단백질 공급과 고용창출 등으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양계산업이지만 이면에는 양계농장들의 시설이 열악해 외부로부터의 질병 차단 방역 문제 등이 노출되어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PT)

필리핀

수출,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

필리핀 양계산업이 수출선을 한국과 말레이시아로 선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이미 일본에 수출선을 넓히면서 득을 보고 있는 필리핀이 5억불(약 1,200 억원)의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수출에 비중을 두고 새로운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리핀의 식품계열사들(Miguel사 등)은 이미 금년 일본에 5만kg의 닭고기를 수출해 놓은 상태이다. (AP)